

상승세였는데… KIA 윤도현 부상 이탈

11일 삼성전 7회초 수비 도중 공에 맞아 골절…4주 재활 필요
주전들 잇단 공백…이범호 감독 “있는 선수로 최대한 버틸 것”



롤러코스터화력으로 고민하고 있는 ‘호랑이 군단’이 또 다른 부상 악재를 만났다. 이번에는 내야수 윤도현이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했다.

KIA 타이거즈는 1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 앞서 엔트리를 교체했다. 내야수 윤도현과 홍중표를 말소한 KIA는 내야수 박민과 외야수 박재현을 불러들였다.

윤도현은 부상에 의한 말소다.

11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겸 2루수로 선발 출장한 윤도현은 7회초 수비 도중 교체됐다.

윤도현은 7회초 무사 2루에서 디아즈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다가 포구 실책을 기록했다. 무사 1·3루가 되면서 홍중표가 투입됐고, KIA는 전상현을 등판시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당시 손가락에 공을 맞았던 윤도현은 우측 두 번째 손가락 타박상으로 교체됐고,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중위지골(중간마디뼈) 원위부 골절 소견을 받았다. 수술은 피했지만 약 4주간의 재활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손을 계속 다친다. 골절이라고 하니가 머리가 복잡하다. 1·3루 더블플레이 상황이라서 교체했었는데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검진을 했고 골절 진단이 나왔다. 계속 부상이 생기니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윤도현의 부상에 대해 설명했다.

윤도현은 신인 시절인 2022년 시범경기에서 수비 도중 슬라이딩 캐치를 하다가 손을 절질리면서 오른손 중수골(손등뼈) 골절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퓨처스리그 경기 도중 안타를 치고 3루까지 향하다가 슬라이딩 과정에서 왼쪽 중지와 약지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개인적으로는 팀 입장에서 아쉬운 부상이다. 지금 KIA 내야에는 김도영, 김선빈이 각각 햄스트링과 종아리 부상으로 빠져있다. 외야에는 나성범이 종아리, 박정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 중이다.

재활과 실전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KIA는 부상병들이 복귀하는 후반기 재반격을 노리고 있던 상황이다. 그에 앞서 최대한 승수를 쌓아둬야 하는 상황이지만 타석에 또 다른 이탈자가 나왔다.

지난해 다이내마이트 타선으로 우승을 이뤘던 KIA는 올 시즌 기록 많은 타격에 고전하고 있다.

주중 시리즈에서도 그 흐름은 여전하다. 10일 삼성전에서 단 1점도 뽑지 못하면서 0-8 영봉패를 당했던 KIA는 11일에는 김호령의 623 일만의 결승타를 앞세워 6-3 승리를 거뒀다.

윤도현도 기록은 보였지만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윤도현은 지난 1일 KT전에서 프로 첫 연타석 홈런을 기록했고, 8일 한화전에서는 3안타를 날리면서 힘을 보여줬다.

또 다른 부상 악재를 만난 이범호 감독은 “부상 선수들이 언제 돌아올 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고, 올스타브레이크까지 있는 선수들로 잘해보도록 하겠다”며 “박민과 김규성을 돌아가면서 선발로 내고 지금처럼 운영하겠다. 당일 컨디션 보고, 어떤 상황에서 누가 가장 적합할지 판단해서 기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현을 콜업한 이범호 감독은 박병의 승부에서 스피드를 활용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범호 감독은 “1점 내야 할 찬스에서 도루도 시키면서 역할을 맡기겠다.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보려고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호령이 지난 11일 삼성전에서 623일만의 결승타를 기록하는 등 달라진 타격으로 위기의 외야에 새로운 힘이 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외야 호령’ KIA 김호령, 타격까지 되네

11일 삼성전 623일만의 결승타
특타 훈련 자처 타이밍 맞추기
이범호 감독 원포인트 레슨도

KIA 타이거즈의 김호령이 타석에서도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KIA 타이거즈 김호령은 지난 11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9차전에서 멀티히트와 함께 2타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2타점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온 영양가 만점의 타점이었다.

2-2로 맞선 6회말 2사 만루에서 김호령은 삼

성의 두 번째 투수 김재윤을 상대로 중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2타점을 장식했다.

리드를 잡은 KIA가 6-3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김호령은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2023년 9월 27일 창원 NC전 이후 623일만에 기록된 결승타다.

김호령은 “600일만의 결승타라고 해서 놀랐는데, 너무 좋았다”며 “타석에서 느낌이 좋았다. 특타칠 때 좋았던 느낌을 타석에서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됐다. 나를 믿자는 마음으로 똑같이 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령은 KIA가 0-8 영봉패를 당했던 지난 10일 특별 타격 훈련을 자처했다. 박찬호, 이창진과 함께 조명탑을 켜놓고 야간 훈련을 했던 김호령은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감잡기에 나섰다.

김호령은 “특타치면서 타이밍 잡는 부분을 신경 썼다. 미리 타이밍을 잡는 걸 생각하면서 했는데 특타칠 때 느낌이 좋았다. 미세한 차이인데 느낌이 다른 것 같다. 그 느낌으로 한 게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의 ‘원포인트 레슨’도 통했다.

이범호 감독의 조언 대로 타격 자세에 변화를 주면서 3일 두산전에서 3안타를 기록하기도 했던 김호령은 이번에는 ‘공을 불러들이는 느낌’이라는 말 주목했다.

김호령은 “감독님께서 타격 타이밍을 잡을 때 ‘공을 불러들이는 느낌’으로 치라고 하셨다. 타격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아 존을 더 넓게 활용해 타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FC가 13일 FC서울을 상대로 홈경기를 치른다. 앞선 경기에서 골을 기록했던 헤이스가 서울전 6연승에 앞장선다. <광주FC 제공>

‘꿀맛 휴식’ 광주FC, 서울전 6연승 도전

오늘 안방서 K리그1 18라운드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서울전 6연승을 노린다.

광주FC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1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에는 전금 같은 A매치 휴식기였다.

이른 개막으로 일찍 시동을 걸었고 ACLE 일정을 소화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다녀왔다. 코리야컵 일정까지 병행하면서 광주는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수비 핵심 김진호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긴 재활에 들어갔고, 수문장 김경민도 안와골절을 당하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체력적인 어려움 속 A매치 휴식기가 찾아오면서 광주는 재정비 시간을 벌었다.

꿀맛 휴식을 취한 광주는 서울과의 좋은 기억을 살려 승리 잇기에 나선다.

17경기를 치른 광주는 6승 6무 5패(승점 24)의 전적으로 6위에 위치했다. 5위 김천상무와는 승점 1점 차, 19경기를 소화한 3위 울산HD와도 승점 5점 차에 불과하다.

서울은 5승 7무 5패(승점 22)를 기록하면서 2점 차로 광주에 이어 7위다.

광주는 이번 승리로 서울의 추격을 따돌리고 상위권 진입의 발판을 놓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서울 ‘천적’이다. 202년 9월 17일 30라운드 맞대결에서 1-0 승리를 시작으로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광주는 모두 승자가 됐다.

지난해 3경기에서 승점 9점을 쌓아올린 광주는 지난 4월 전개된 9라운드 서울전에서도 헤이스와 박태준의 골로 2-1승리를 거뒀다.

체력을 채운 광주는 ‘금요일 밤’ 맞대결에서 서울전 6연승을 노린다.

한편 이번 홈경기에 앞서 ‘그린 스타디움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광주는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1 1~13라운드 ‘그린스타디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린스타디움상은 경기감독관 평가(50%), 선수단 평가(50%)를 통해 최상의 그라운드를 유지한 팀에게 돌아간다.

장외에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주최하는 ‘K리그 온 더 로드’ 이벤트가 펼쳐지고 팬들을 위한 품품푸린 포토존, 선수단 사인회 등도 준비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홍명보호, 10월, 파라과이 초청 평가전

6경기 연속 무패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10월 A매치 기간에 파라과이를 국내로 불러들여 평가전을 펼친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10월 14일 파라과이와 국내에서 맞붙는다”라며 “파라과이 평가전은 10월 A매치 주간에 치러지는 두 경기중 하나다. 구체적인 장소와 경기 시간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지난 10일 펼쳐진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리그 B조 10차전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조 1위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품었다.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 체제에 들어간 대표팀은 9월 A매치 기간에 미국 원정을 떠나 미국(한국시간 9월 7일)과 멕시코(현지시간 9월 9일)와 맞붙는다.

홍명보호는 10월 매치 기간에도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르는데, 파라과이가 상대로 먼저 결정됐다.

한국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 2승 4무 1패를 거뒀다.

1986년 2월 첫 맞대결에서 1-3으로 패한 이후 6경기 연속 무패(2승 4무)를 이어왔다.

가장 최근 대결은 2022년 6월 10일 수원원에서 맞붙은 친선전으로 2-2 무승부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8위인 파라과이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예선에서 6승 6무 4패를 거두며 5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